

석사학위 작품해설집

유 유 히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손 효 주

석사학위작품해설집  
지도교수 박 인 숙

유 유 히

2013년 12월 17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손 효 주

석사학위작품해설집  
지도교수 박 인 숙

유 유 히

위 해설집을 무용학 석사학위 작품 해설집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17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손 효 주

손효주의 무용학 석사학위 작품 해설집을 인준함

2013년 12월 17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목 차

|                          |    |
|--------------------------|----|
| I. 작품개요 .....            | 1  |
| 1. 작품의 주제설정 및 의도 .....   | 1  |
| 2. 작품구조 및 내용 .....       | 2  |
| 1) 전체적 구조 .....          | 2  |
| 2)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     | 3  |
| 3) 움직임의 특징 .....         | 4  |
| 4) 음악적 효과 .....          | 4  |
| 5) 의상 효과 .....           | 6  |
| 6) 동선을 이용한 표현 및 효과 ..... | 8  |
| 7) 조명 효과 .....           | 9  |
| 3. 공연프로그램 요약 .....       | 10 |
| II. 작품의 창작과정 : 유유히 ..... | 12 |
| 1. 장면 1 : 흐름 .....       | 12 |
| 1) 내용 .....              | 13 |
| 2) 안무의도 .....            | 13 |
| 3) 움직임 표현방법 .....        | 13 |
| 4) 조명 .....              | 14 |
| 5) 음악 .....              | 15 |
| 6) 동선 .....              | 15 |
| 2. 장면 2 : 차단의 Try .....  | 17 |
| 1) 내용 .....              | 17 |
| 2) 안무의도 .....            | 17 |

|                            |    |
|----------------------------|----|
| 3) 움직임 표현방법 .....          | 18 |
| 4) 조명 .....                | 19 |
| 5) 음악 .....                | 19 |
| 6) 동선 .....                | 20 |
| 3. 장면 3 : 강제적 그리고 대립 ..... | 22 |
| 1) 내용 .....                | 22 |
| 2) 안무의도 .....              | 23 |
| 3) 움직임 표현방법 .....          | 23 |
| 4) 조명 .....                | 25 |
| 5) 음악 .....                | 25 |
| 6) 동선 .....                | 25 |
| 4. 장면 4 : 두려움 .....        | 26 |
| 1) 내용 .....                | 26 |
| 2) 안무의도 .....              | 27 |
| 3) 움직임 표현방법 .....          | 27 |
| 4) 조명 .....                | 29 |
| 5) 음악 .....                | 29 |
| 6) 동선 .....                | 29 |
| 5. 장면 5 : 순응. 하지만,, .....  | 30 |
| 1) 내용 .....                | 31 |
| 2) 안무의도 .....              | 31 |
| 3) 움직임 표현방법 .....          | 31 |
| 4) 조명 .....                | 33 |
| 5) 음악 .....                | 33 |
| 6) 동선 .....                | 33 |

|               |    |
|---------------|----|
| Ⅲ. 작품후기 ..... | 35 |
|---------------|----|

|              |    |
|--------------|----|
| <b>【부 록】</b> | 39 |
| 1. 안무노트      | 39 |
| 2. 연습사진      | 40 |

## 【 표 목 차 】

|                 |    |
|-----------------|----|
| [표 1] 작품의 구성    | 2  |
| [표 2] 공연프로그램 요약 | 10 |
| [표 3] 동선 기호     | 15 |

## 【 그 림 목 차 】

|                         |    |
|-------------------------|----|
| 〈그림 1〉 ~ 〈그림4〉 장면1 동선   | 16 |
| 〈그림 5〉 ~ 〈그림6〉 장면2 동선   | 20 |
| 〈그림 7〉 장면2 동선           | 21 |
| 〈그림 8〉 장면3 동선           | 25 |
| 〈그림 9〉 ~ 〈그림 10〉 장면4 동선 | 30 |
| 〈그림 11〉 장면5 동선          | 34 |

## 【 사 진 목 차 】

|                               |    |
|-------------------------------|----|
| 〈사진 1〉 소품 (초) .....           | 3  |
| 〈사진 2〉 작품의상 상의 .....          | 7  |
| 〈사진 3〉 작품의상 하의 .....          | 8  |
| 〈사진 4〉 ‘유유히’ 장면1 리허설 중 .....  | 12 |
| 〈사진 5〉 시작 .....               | 14 |
| 〈사진 6〉 흐름 .....               | 14 |
| 〈사진 7〉 과거 그리고 추억 .....        | 14 |
| 〈사진 8〉 내면 .....               | 14 |
| 〈사진 9〉 ‘유유히’ 장면2 리허설 중 .....  | 17 |
| 〈사진 10〉 try .....             | 18 |
| 〈사진 11〉 차단 .....              | 18 |
| 〈사진 12〉 강한저항 .....            | 19 |
| 〈사진 13〉 ‘유유히’ 장면3 리허설 중 ..... | 22 |
| 〈사진 14〉 강제성 .....             | 24 |
| 〈사진 15〉 대립 .....              | 24 |
| 〈사진 16〉 흐름의 반대반향 .....        | 24 |
| 〈사진 17〉 ‘유유히’ 장면4 리허설 중 ..... | 26 |
| 〈사진 18〉 공포 .....              | 28 |
| 〈사진 19〉 내면의 두려움 .....         | 28 |
| 〈사진 20〉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함 .....    | 28 |
| 〈사진 21〉 ‘유유히’ 장면5 리허설 중 ..... | 30 |
| 〈사진 22〉 받아들이기 .....           | 32 |
| 〈사진 23〉 홀리감과 두려움의 공유 .....    | 32 |

# I. 작품개요

## 1. 작품의 주제설정 및 의도

나의 인생에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깨달았던 12살 즈음부터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했다. 시간은 너무도 당연히 흘러가는데, 죽음은 당연한 듯 다가오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붙잡혀 순응하며 살아 갈수밖에 없음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의 삶에서 시간의 흐름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그저 죽음과의 시간거리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했다. 결국 나에겐 시간흐름의 어두운 면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또,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하듯 시간흐름에 대한 나의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이 큰데 시간은 너무도 고요히, 그리고 유유히 나를 흡수하며 흘러갔다. 그 속에서 흐름을 멈추려하는 나의 헛된 희망을 발견하고 스스로 안타깝고 슬퍼졌다.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토대로 이번 작품에서 시간흐름을 주제로 선정하여 시간흐름을 멈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리고 싶고 멈추고 싶어 하는 헛된 희망 그리고 결국 흘러감을 인정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 2. 작품구조 및 내용

[표 1] 작품의 구성

|    |                                                         |
|----|---------------------------------------------------------|
| 제목 | 유유히                                                     |
| 의도 | 흐르는 시간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속상해 하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
| 주제 | 시간흐름에 대한 아쉬움                                            |
| 음악 | Bjork 의 Solstice (지점) 편곡                                |
| 시간 | 16분 10초                                                 |

### 1) 전체적 구조

작품은 두 가지의 표현이 존재하고 두 무용수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며 표현의 주체는 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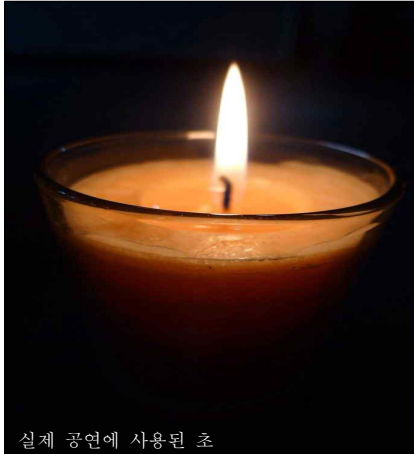
표현의 첫 번째는 흐름, 두 번째는 흐름의 차단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은 지속되며 그 속에서 느림, 빠름, 강약, 정지와 공백이 나타난다. 그 어떤 스토리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시간흐름에 대한 차단과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에 충실하였다.

눈으로 보여 지지 않은 시간은 초로 대변하고 흐름에 대한 표현은 무용수가 초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동선이동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작품에서 사용되는 초 세 개 중 두 개는 비현실적공간에서 잡아놓을 수 있음이 허용되는 과거와 추억 같은 시간을 의미하여, 무대 뒤에 가만히 내려놓고 타 들어 가게끔 하여 흐름이 정지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갖게 한 원인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 2)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 〈사진 1〉 소품 (초)



( 중간 컵 크기의 펴유로 만들어진 ‘초’ 사용  
: 다른 초에 비해 촛농이 느리게 녹고 오랜  
시간 불씨가 강하게 지속되며 촛농이 흘러내려  
도 빠른 시간에 굳어져 피부에 쏟아지거나 바닥  
에 쏟아져도 위험성이 없음)

초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으로부터 시간의 존재를 알리고 심지가 타들어가고 심지가 다해 불이 꺼지는 과정을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가정하여 초가 타는 동안에도 시간이 흐른다는 뜻을 내포하면서 작품이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작품에서 마지막 초를 꺼뜨리지 않은 행위는 인간 개인의 시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겠지만 우주전체를 보았을 때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작품에서 촛불이 주는 빛은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면서 불이 비춰지는 한정된 범위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범위 속에서 흐름과 차단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즉 촛불이 주는 빛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 무용수만이 움직임을 하도록 하였고, 시간흐름을 차단하려는 시도와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비현실적 표현을 필요로 할 때 빛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허용하였다.

### 3) 움직임의 특징

A무용수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어떠한 상태도 아닌 그저 시간흐름의 주체인 초를 흘러가게끔 표현되도록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 표현하며 그를 상대로 B무용수는 현실의 나로써 시간흐름을 막으려는 허망한 꿈을 꾸는 자신을 나타낸다. 또 감정적으로 애뜻함, 애절함, 간절함 또는 절규가 얼굴에 함축되어 드러나며 신체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둘 사이의 격정적인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 낸다.

움직임은 공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촛불이 비춰주는 범위를 시간 이주는 제한적인 공간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표현방법이 만들어졌다.

또한 초가 쉽게 꺼지지 않게 하기위하여 빠른 움직임에서는 초를 몸 가까이 오도록 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안무를 하였고, 그 외에는 초는 가만히 두고 신체만 움직이는 방법을 이용해 빠르고 격정적인 움직임을 하였다. 서로 올라타고, 기대고, 누르고, 당기고, 밀고, 바라보고, 외면하는 방식의 두 명의 무용수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고,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법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흐름과 차단)이 성실하게 실행되고 있다. 작품 속 움직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집요하게 천천히 혹은 안정되도록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다. 무용수의 숨소리와 시선을 따라 관객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느낌과 평온함이 주는 안정된 호흡으로 진지함을 이끌어 내고,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 4) 음악적 효과

작품에서 무용수들의 표현과 감정을 가장 잘 받쳐주고 있는 음악은 가수 Bjork 의 Solstice(지점)으로 비육의 호소력 있고 사실적이고 강한 보이스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합쳐져 이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더 깊은 환상으로 빠져들게 도와준다. 이 노래의 가사는 철학적이며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빛이 나지 않는다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유유히' 작품 속 허상을 꿈꾸는 나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로써 음악을 활용하게 된다. 이 노래의 특징은 가사의 반복이나 후렴구가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시를 읊듯이 노래되어 진다. 공연의 필요성에 의해 음악은 멜로디만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느리게 만들어 작품의 처음과 끝을 만들고, 가사를 반복적으로 나오게끔 편곡을 하여 작품의 중간을 채웠다.

새로운 노래나 멜로디가 추가 된 것은 없으며 오로지 이 노래 한곡을 이용하여 16분이라는 음악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 노래의 원곡은 4분 41초 이다.

### "Solstice" 지점

*When your eyes pause on the ball That hangs on the third branch from the star,*

너의 시선이 별의 세 번째 가지에 걸려있는 공에 멈추면,

*You remember why it is dark And why it gets light again.*

넌 생각하지. 왜 그것이 어두운지, 그리고 왜 다시 밝아지는지.

*The Earth, like the heart, slopes in it's seat*

심장 같은 지구는, 자기의 자리에서 기울어져 있고,

*And, like that, it travels along an elliptical path*

그리고 타원형의 길을 따라 움직이지(여행을 하지)

*Drawn into the darkness.*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

*An unpolished pearl*

광(윤)을 내지 않은 진주

*In sky-black*

까만 하늘에,  
*Palm of hand*  
손바닥  
*Flickering sun-flame.*  
깜박이는 태양의 불꽃  
*And then you remember*  
그러면 넌 알게되지

*That you, yourself, you are a light-bearer, a light-bearer Receiving  
radiance from others*  
니가, 너 스스로가 빛을 옮기는 사람이란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빛의 운반자!)

*Flickering sun-flame.*  
깜박이는 태양의 불꽃  
*Unpolished Earth in palm of hand.*  
손 바닥 위의 광을 내지 않은 지구.

( 가사번역 :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과정 노경아 )

## 5) 의상 효과

의상은 최대한으로 무용수의 몸이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스킨색의 망사를 사용한 질감과 짧은 팬츠로 다리를 드러내어 빛이 의상으로 인하여 탁해지지 않게 하였고 초의 빛이 피부를 비추었을 때 빛이 반사되는 몸의 일부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무용수들의 표현방법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현실적인 캐릭터보다는 행위의 주체로 적용하여 의상을 똑같이 입도록 하였고 오로지 움직임 표현과 감정표현 선에서 둘의 역할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스킨색 망사 의상은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무용수들의 몸의 윤곽을 아름답게 드러내 주고, 촛불이 비춰지는 범위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역할을 하였다.

가슴 위 까지 덮여지는 쥐색의 앞면과 의상의 뒷면 허리라인을 쥐색의

면으로 살짝 가려놓아 가려지지 않은 목, 쇠골, 팔, 어깨, 등 면이 망사를 이용한 투시효과로 신체부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하였고, 움직였을 때에는 손끝에서부터 목선까지의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드러나고, 뒷면은 허리보다 높이 올라온 라인이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와 동시에 상체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사진 2〉 작품의상 상의



( 조명에 비춰졌을 때 망사의 재질이 신체를 그대로 드러나도록 디자인 )

〈사진 3〉 작품의상 하의



( 상의의 짙색의 면과 잘 어울리는 어두운 남색으로 상의가 돋보이도록 색을 선정,  
일반적인 디자인의 반바지 )

#### 6) 동선을 이용한 표현 및 효과

작품에서 사용된 동선은 복잡하지 않되 정리된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직선과 사선만을 사용하였다. 서로의 주의를 맴돌거나 수직 움직임을 하면서도 동선의 이동은 직선을 고집하였다. 이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며 흐름이라는 행위 혹은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Up Stage에서의 동선이동으로 작품이 시작되고 점점 Down Stage로 이동된다. 갑작스런 동선변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알게 모르게 서서히 앞으로 이동된 무용수의 위치를 간간히 확인시켜주면서 너무도 조용히 흘러가는, 유유히 흘러가는 시간의 모습을 동선이동으로 표현하였다. 무용수들이 완전히 Down Stage로 옮겨지면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였고 무용수의 감정표현이 그대로 객석에 전달되어 비현실적인 허상에서 깨어나 현실적인 시간흐름을 깨닫게 되는 그 찰나를 직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작품이 고조되면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 동선이 사용되는데 이는 본래 흐름을 막으려는 자의 에너지가 우월해지면서 흐름이 행여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마지막 반란으로 사용되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을 동선으로 한층 더 고조시켜주었다.

작품은 동선이 시작된 반대지점인 하수 Up Stage로 퇴장하면서 끝난다. 그 곳으로의 동선을 택한 이유는 결국 곧바로 오면 금방이고 쉽게 갈 수 있었을 길을 이리저리 헤매며 고통스럽게 또는 어지럽게 도착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하였고, 그 속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사고와 감정과 사람을 경험하고 결국은 다 같은 죽음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 7) 조명 효과

조명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푸른색의 전체조명을 이용하여 차가운 느낌과 어둡고 음산한 느낌을 만들어 작품의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조명을 켜고 꺼를 때 푸른색과 상반되는 오렌지색을 사용하여 무용수의 실루엣이 도드라지게 하여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에서 푸른색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색이 강, 바다, 하늘을 연상케 하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내려가는 표현을 함축시킨 상징적인 색으로 ‘ 흘러간다 ’, ‘ 유유히 흘러간다 ’ 라는 표현을 시각적인 효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촛불이 조명의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효과나 강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는 사람들이 촛불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 3. 공연프로그램 요약

[표 2] 공연프로그램 요약

|       |                |
|-------|----------------|
| 작품명   | 유유히            |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
| 장 소   | M극장            |
| 안무자   | 손효주            |
| 출연진   | 손효주, 김혜진       |
| 의상디자인 | 의상실 art design |
| 무대감독  | 김정웅            |
| 조명감독  | 김진아            |
| 영상감독  | 이동헌            |

**홍지명**



“외이우스의 퍼”

**출연진**  
이다솜 · 김소연 · 김재권 · 전종근

**작품내용**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야기나 알지거나 더 큰 이익을 거두는 것을 경쟁이라고 한다.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그들이 겪어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며, 그로인한 경쟁은 외이우스의 퍼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회로 가기위한 경쟁은, 또 다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되어버리고 그 모습은 마치 기계와도 같다.  
달라기 선수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쟁의 모습을 표현한다.



**손효주**



“유유히”

**출연진**  
김혜진

**작품내용**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은 않은 시간흐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실망감과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리고 싶은 간헐함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또 흘러가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





무용학과 지도교수

박영애 교수\_이론  
김경자 교수\_이론  
박인숙 교수\_현대  
박재홍 교수\_발레  
김남용 교수\_한국

김진선

“변화를  
위한 노력”

이규리

작품내용

나는 항상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화한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김현미

“불편한 공유”

유지은 · 조연희 · 이세실

작품내용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유지하여 살아간다.  
이 개인공간에 타인이 허락없이 침범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하는데,  
알지 못하지 않은 개인공간의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소, 확대, 경계를 하계되는 실리적인 신경전을  
보이고자한다.



2013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13. 11. 21 THU 07:00 PM

장 소 M극장 주 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 11 -

## Ⅱ. 작품의 창작과정 : 유유히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은 않은 시간흐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실망감과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리고 싶은 간  
절함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도 흘러가 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

### 1. 장면 1 : 흐름

〈사진 4〉 '유유히'장면1 리허설 중



## 1) 내용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간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혹은 인식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을 시간.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 2) 안무의도

어둠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성냥의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이내 초에 불이 붙어졌을 때 빛의 공간은 더욱 더 넓어진다. 이것으로서 시간이라는 존재를 알린다. 또 초가 밝혀주는 빛의 한정된 범위를 보여줌으로 빛의 공간적 제한 표현을 하고 인간의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서서히 움직이는 빛을 통해서 시간은 정지하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표현한다. 시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쉽게 인식하지 못하듯 무대에서 또한 빛은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보는 사람이 쉽게 느낄 수 없도록 동선이동이 되도록 하였고 이런 움직임으로부터 작품의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 3) 움직임 표현방법

이 장면에서는 오로지 ‘유유히’에 집중한 흐름이다. 최대한 여유롭게 인식하지 못하게 빛이 이동되는 모습으로 시간흐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주 느린 걸음으로 동선이동이 이루어진다. 시간흐름 속에서 인간에게 ‘시간을 간직하고 정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과거’와 ‘추억’이라는 지나간 시간을 다른 두 개의 초로 흘러가는 동선에서 꺼내어 다시 시작지점에 내려놓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곧 막아 세울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만들어냈다.



〈사진 5〉 시작

〈사진 6〉 흐름



〈사진 7〉 과거 그리고 추억

〈사진 8〉 내면

#### 4) 조명

무용수의 실루엣만 보일정도의 어두운 블루조명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고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포그를 사용하였다(사진8). 블루조명과 포그 그리고 빛.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무대는 포그 속에 마치 빛이 떠나려 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내어 홀러감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는데 탁월했다(사진4).

또한, 암흑에서 불이 켜지는 행위로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과 존재함을 알리고, 벽으로부터 스치듯 나타나는 조명은 흘러가야할 시간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사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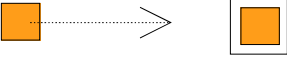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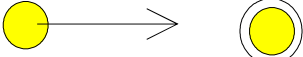
## 5)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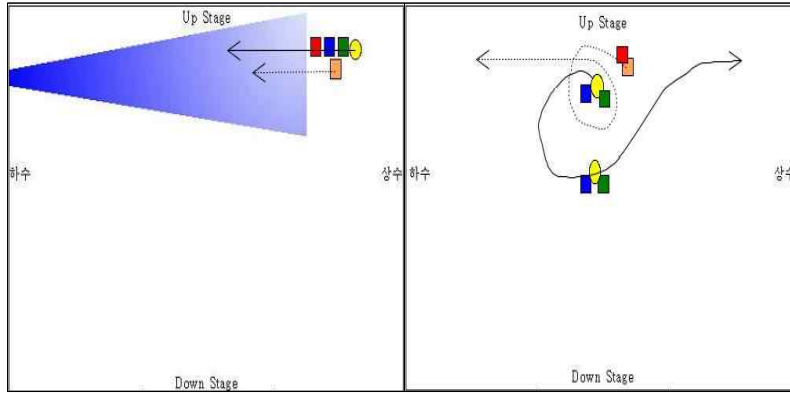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공연이 시작된다. 멜로디는 아주 느리게 들려온다. 멜로디가 멀리 사라지면서 막힌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의 울리는 소리가 계속 지속되고 그 효과는 마치 무중력의 우주공간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음악에서 초가 흘러가고 떠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 6) 동선

상수에서 하수로 아주 느린 걸음으로 A무용수 먼저 이동하고 뒤를 따라 B무용수가 이동하면서 정해진 시간흐름의 방향을 동선에서 나타내고 <그림1>, 곧이어 A무용수의 등 위에 올려진 세 개의 초 중 두 개를 B무용수가 상수 Up Stage 로 다시 옮겨 놓으며 A무용수는 하수로 계속 이동한다. 이것은 함께 흘러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분리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선이 사용된다<그림2>.

[표 3] 동선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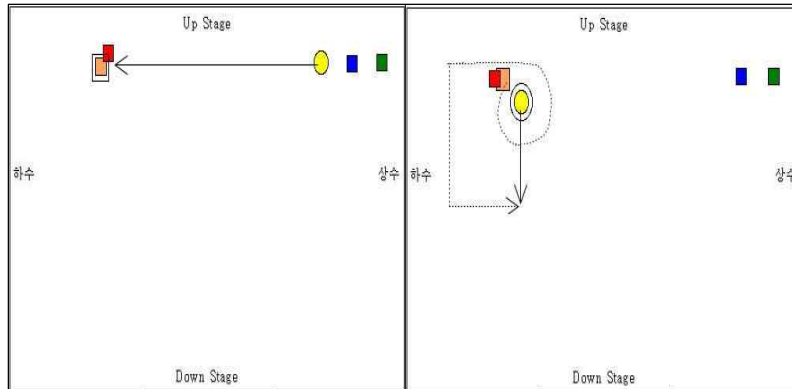
|           |                                                                                     |
|-----------|-------------------------------------------------------------------------------------|
| 초         |  |
| A무용수 / 정지 |  |
| B무용수 / 정지 |  |



〈그림 1〉 장면1 동선

〈그림 2〉 장면1 동선

하수 Up Stage에서 두 무용수가 만나고 초의 빛에 의지하여 A무용수 주위를 맴도는 동선을 이용하고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무용수들은 함께 하수 Center로 이동 한다〈그림3〉〈그림4〉.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시간을 붙잡고자 하는 내면의 감정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으로 동선이 활용되었다.



〈그림 3〉 장면1 동선

〈그림 4〉 장면1 동선

## 2. 장면 2 : 차단의 Try

〈사진 9〉 '유유히' 장면2 리허설 중



### 1) 내용

과거와 추억은 간직하였다. 하지만 나는 ‘순간’까지 붙잡고 싶다. 언젠가 끝나버릴 이 시간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모두 두렵다. 붙잡거나 흐르는 시간을 막아 세우려는 허망한 꿈.

### 2) 안무의도

이 장면은 허망한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오는 비현실적인 것에 매달리는 나의 모습을 그린다. 흘러감에 충실한 무용수를 막아 세우고 초에 집착하며 조심스레 빼앗으려는 고집을 보여주며 그에 맞는 캐릭터를 가지

게 된다. 비현실적공간에서 허상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며,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고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만이 느껴지는 무거운 느낌을 가득담은 표현이 의도되었다.

### 3) 움직임 표현방법

흘러가던 초를 이내 내 손으로 내려놓지만 내 손안에 있는 초를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내 그 초는 내 손을 벗어나 다시 흘러간다<사진 10>. 그런 초를 멀리서 바라보며 다른 시도를 해본다. 그 방법으로 배, 어깨, 등, 발, 올라타기, 숨어들어가기 등의 표현방법이 나타난다.

매번 실패하는 모습이 표현되며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 작품에 찾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냈다. 시간은 절대 멈출 수 없음을 직시하고자 하였다 <사진11><사진12>.



<사진 10> try

<사진 11> 차단



〈사진 12〉 강한 저항

#### 4) 조명

초가 무용수 등에서 분리되어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무용수들의 실루엣과 움직임이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오렌지색 탑 조명을 흐리게 하였다. 모든 초점은 초이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밝지도 않으면서 초가 부각 될 수 있게끔 조명을 어둡게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블루조명은 계속 지속하여 몽환적인 느낌이 가득 차도록 의도하였다(사진 11).

#### 5)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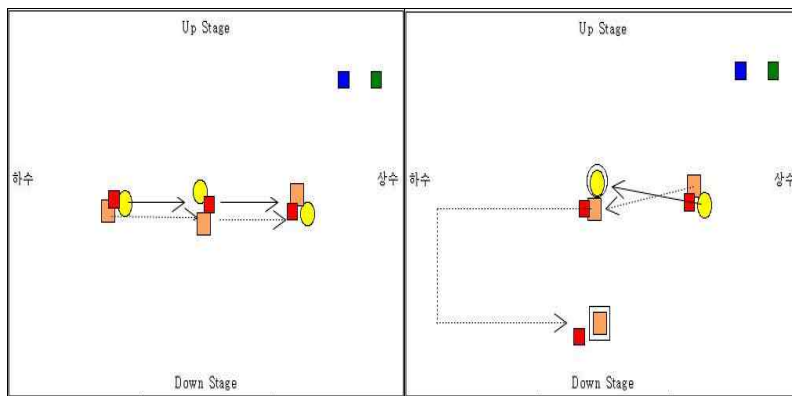
무거운 느낌의 소리와 비육의 목소리가 오버랩 되면서 무용수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애절하고 특별한 비육의 목소리와 음악의 사차원적인 멜로

디는 비현실적인 작품을 더욱 더 몽환적인 느낌으로 이끌어준다.

## 6)동선

Center Line 하수에서 상수로 이동하며 흘러감을 차단하는 B무용수의 시도와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A무용수의 진행방향으로 거침없이 계속 이동된다. 이는 굴곡이 있지만 정해진 흐름의 이동을 표현하면서 차단하려는 시도로써 동선이동의 순간적 멈춤으로 표현된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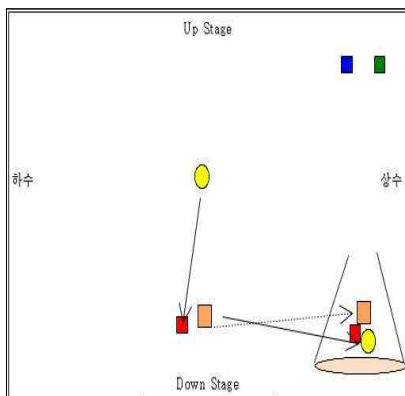
또 Center에서 두 무용수가 분리되어 A무용수는 계속 하수를 거쳐 하수 Down Stage 그리고 center Down Stage까지 계속 이동을 유지하고, B 무용수는 Center에서 이동하는 A무용수를 따라 시선의 변화만 준다. 이러한 동선은 B무용수가 현실은 붙잡지 못했으나 제자리에 멈춤으로써 과거 속에 안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A무용수는 계속 해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여 멈추지 않은 시간의 흐름을 계속 적으로 표현한다 <그림6>.



<그림 5> 장면2 동선

<그림 6> 장면2 동선

하수로 이동한 A무용수가 Down Stage Center에 도착하면 B무용수도 Down Stage로 이동하여 두 무용수가 만나 상수 Down Stage로 이동하는데 A무용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계속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B무용수는 가로지르는 동선을 사용하여 막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준다<그림7>.



<그림 7> 장면2 동선

### 3. 장면 3 : 강제적 그리고 대립

〈사진 13〉 ‘유유히’ 장면3 리허설 중



#### 1) 내용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거부한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속에 흡수되어, 혹은 우리는 시간 속에 흡수되어 흘러간다. 여기서 보여 지는 시간의 강제적인 흐름은 결국 대립구도를 만들게 된다. 그 대립은 승산이 없지만 점점 격정적이게 된다. 가능할 수 없기에 더 격렬하게 대립한다.

## 2) 안무의도

분명히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함이라는 것에 불만이 표현된다. 여기서 나는 흘러가는 시간에 강하게 맞서며 움직임이나 감정표현에서 더욱 더 고조됨을 나타내려하였다. 강제성이 커질수록 대립의 긴장감과 충돌은 더욱 커져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 3) 움직임 표현방법

흘러가는 무용수의 동선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흐름을 표현하는 무용수가 강자가 되어 강제적으로 흐름의 진행방향으로 걷게 하고 목을 짓누르는 움직임으로 우월함을 나타낸다<사진14>.

두 번째 장면의 ‘차단의 try’는 작품이 끝날 때 까지 지속되면서 이번 장면에서 강제적 흐름으로 인한 try는 더욱더 자극적이고 격정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한다<사진15>. 그 과정에서 초를 뺏고 빼앗는 긴장감 있는 움직임으로 동선의 이동도 커지고 빠르고 몸을 내던지며 액센트가 강한 움직임을 주로 하게 된다<사진16>.



〈사진 14〉 강제성



〈사진 15〉 대립



〈사진 16〉 흐름의 반대방향

#### 4)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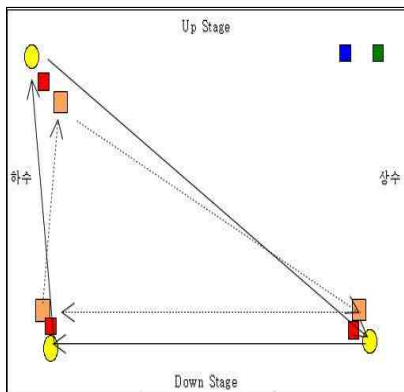
블루 전체조명을 유지하며 두 무용수가 분리 되었을 때에 초가 없는 무용수에게 오렌지조명 탑 조명을 켜 두 무용수간의 공간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조명으로 공간감을 주면서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차이를 눈으로 보이게끔 효과를 줄 수 있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사진13>. 동선이 이동되고 정지 될 때에 무용수의 움직임이 잘 보일 수 있으면서 초가 돋보이게끔 조명을 놓도 있게 주었다.

#### 5) 음악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원곡의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 분위기를 계속 무게감 있게 유지시켜준다.

#### 6)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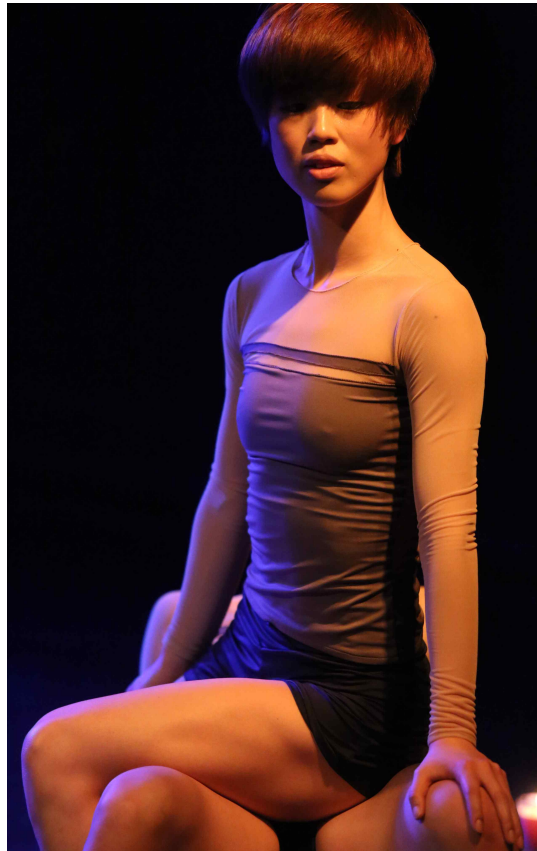
상수에서 하수로 Down Stage에서 하수 Up Stage로 그리고 사선을 질러와 다시 상수 Down Stage로 빠르게 되돌아오는 오는 것으로 역행을 하며 시간의 흐름을 막아 세우려는 강한 저항을 표현한다<그림8>.



<그림 8> 장면3 동선

#### 4. 장면 4 : 두려움

〈사진 17〉 ‘유유히’ 장면4 리허설 중



##### 1) 내용

원할 땐 그토록 갖기 힘들더니 막상 가지게 되니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 한다. 현실을 알기에 시간을 가지고도 쉽사리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뭇든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뒀야 맞는 것이다.

## 2) 안무의도

결국 흘러간다는 현실이 다가올수록, 흐름에 휩쓸려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흐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내 손에 쥐어 졌을 때, 시간이 정지했을 때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 결국 흘러감은 그런 공포를 흡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유유히 흘러간다는 것에 억울함을 슬픔으로서 표현하였다.

## 3) 움직임 표현방법

대립의 사이에 있던 초가 시간의 흐름을 막아 세우는 무용수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B무용수는 몸을 비틀고 꼬아버리는 불안정하고 엷매이는 움직임을 하도록 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담은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신체적으로 적극 표현하였다<사진18><사진19>. 손에 쥐어진 초를 먼저 밀어내는 동작에서 초를 쫓아가는 듯한 움직임과 이동을 하여 초가 마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로 보이게끔 의도하여 움직임을 한다<사진20>. 그리고 서서히 초 세 개가 두 무용수에 의해 만나 천천히 빙글빙글 돈다.

처음으로 초 세 개가 무대에서 만남으로서 결국은 인정하지 않아도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해내고 그것은 너무도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그 속에 나의 두려움과 공포는 깊숙한 곳으로 감춰진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였다<사진17>.



〈사진 18〉 공포



〈사진 19〉 내면의 두려움



〈사진 20〉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함

#### 4)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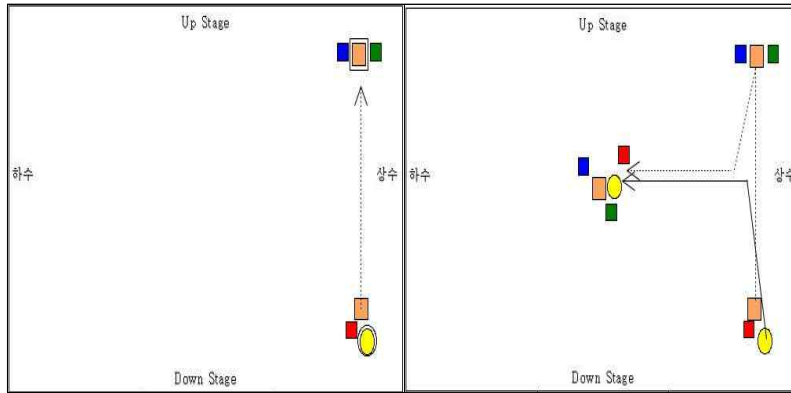
초 세 개가 만남으로서 무용수의 실루엣이 보이도록 포인트를 만들어주던 조명은 모두 꺼지고 전체를 비추던 블루조명도 서서히 사라지게 하여 하수 벽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블루조명만 남겨두었다. 조명이 시작되는 곳이 흘러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시를 해 주도록 의미를 부여하였고 벽으로부터 스치는 블루조명은 작품의 진지함과 무게감을 끝까지 끌고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었다<사진19>.

#### 5) 음악

서서히 목소리는 사라지고 멜로디만 남게 되면서 작품의 처음 음악인 멜로디와 둥 떠있는 듯한 효과음만 남게 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흘러가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처음의 음악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 패턴의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그대로 사용하여 변함없이 유유히 흘러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음악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 6) 동선

A무용수는 상수 Up Stage로 이동하고 B무용수는 제자리에서 움직임을 한다. 동선이동으로 두 무용수를 분리시켜 잠시 동안의 비현실적인 시간 정지의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동의 멈춤이 두려움의 공포로 점점 깊이 빠져듦을 표현한다<그림9>. 그 후에 B무용수가 상수 Down Stage에서 상수 Center로 이동이 되면서 A무용수와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이동으로서 초가 의도하던 대로 즉, 시간이 의도하던 방향으로 흘러감을 나타내어 초 세 개가 만나게 되며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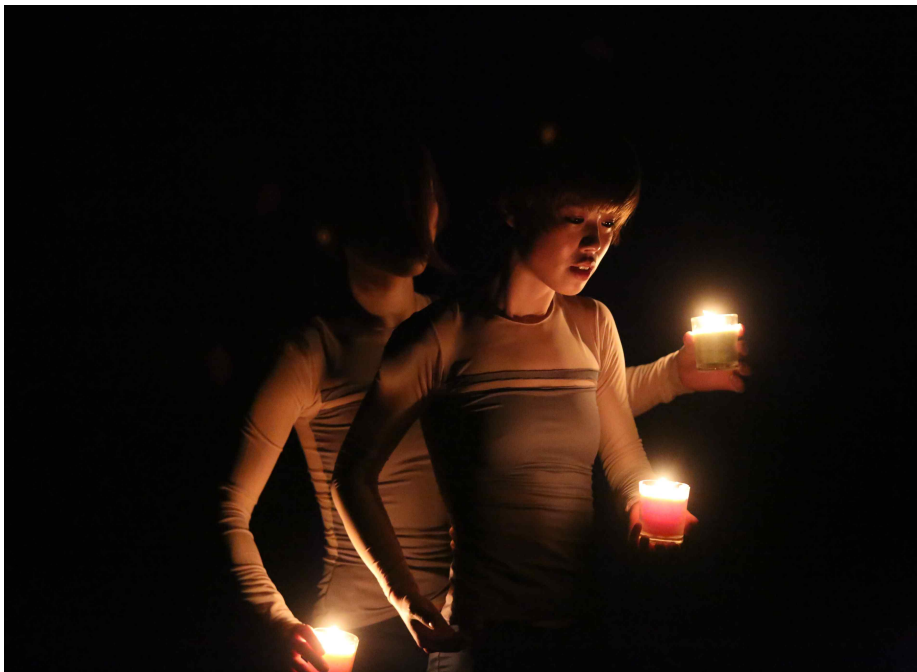


〈그림 9〉 장면4 동선

〈그림 10〉 장면4 동선

## 5. 장면 5 : 순응. 하지만,,

〈사진 21〉 ‘유유히’ 장면5 리허설 중



## 1) 내용

시간이 정지된다는 공포로부터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아직은 격어보지 못한 시간의 끝의 두려움이 앞서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공포를 감출 수 가 없다.

지금 당장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나는 ‘하지만,,그래도,,혹시,,’ 라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

## 2) 안무의도

세 개의 초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현실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안고 순응하려 한다.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끝까지 try하는 나의 모습을 끈질기게 표현하려 하였다. 과거와 추억 즉 허상을 나타내준 다른 두 개의 초를 흘러가는 초를 위해 하나씩 꺼뜨리고 초가 꺼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른 초를 감싸 안는 모습으로 나타낸다.

현재를 나타내는 초만이 남았을 때 강제성이 얼마든지 묻어있고 이전처럼 try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의 끝은 두려움을 안고 결국은 순응하게 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뒷걸음질로 흘러감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결국은 인정하고 흘러감에 몸을 맡기지만 두려움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움직임 표현방법

초 세 개를 나의 눈앞에 가까이 사선으로 나열하여 긴장감을 주고 초라는 독립체가 나를 밀어 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흐름을 하는 무용수는 내 뒤에 숨어 움직이게끔 하였다<사진21>. 여기서는 대립의 관계가 완

전히 정리되어 순응한다는 움직임으로 초가 움직이는 대로 동선이 이동된다.

초를 꺼뜨리고 마지막 초를 남았을 때 작품 속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을 걷게 하였고 순응하는 나는 두려움이 남았다는 것을 표현해 내기 위해 상체는 뒤로 밀려 반쯤 꺾여 있지만 한발 한발 힘겹게 걸으며 십사리 순응한 것만은 아님을 표현으로 작품이 끝이 난다<사진22>.



<사진 22> 밤아들이기



<사진 23> 홀러감과 두려움의 공유

#### 4) 조명

초 세 개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서서히 이동되면서는 벽의 블루조명만이 계속 유지가 되어 무용수의 실루엣은 오로지 초가 만들어 주어 초를 벗어날 수 없게끔 의도하였다<사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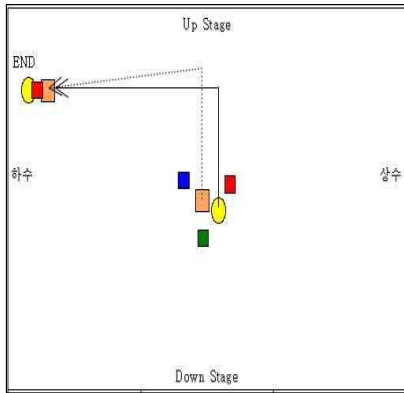
무용수가 퇴장할 때 까지 벽을 스치는 블루조명만 켜놓아 마지막 초가 끝까지 이동되는 빛과 밀고 밀리는 무용수의 실루엣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무용수가 완전히 빛과 함께 퇴장하면 무대 조명은 모두 아스된다.

#### 5) 음악

빛이 하나씩 사라지고 무용수가 퇴장하면서 소리도 저 멀리 사라지게끔 음악을 서서히 Fade-Out 시키고 무음에 가까운 소리만 들려오면서 음악, 빛, 무용수가 모두 무대에서 퇴장한다.

#### 6) 동선

두 무용수가 Up Stage로 함께 이동하면서 점차 초를 꺼뜨리고, 초가 하나가 남았을 때 하수 벽 조명을 따라 Up Stage로 퇴장을 한다. 결국은 상수 Up Stage에서 초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동선을 택하여 퇴장하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시간의 흐름의 방향은 같으며, 시간 속 인생의 굴곡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은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단호하게 얘기해주는 동선으로 사용하였다<그림11>.



〈그림 11〉 장면5 동선

### Ⅲ. 작품 후기

나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가 주는 빛이며 그 빛이 얼마나 또렷이 보일지가 관건이었다. 무용수의 몸 또한 적당히 보이면서 초의 불빛이 포인트가 되어야 했다.

조명을 디자인하면서 어두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밝게 하려니 분위기가 현실적 이어서 작품과 맞지 않았다. 그 이유로 조명을 가장 차가운 파란색으로 하여 무대 뒤로 내리고 벽을 미끄러지듯 스치게끔 하수에서 상수로 보여 지는 블루조명을 하나 더 사용하였다. 뜻밖에 터널 같은 공간의 느낌이 만들어졌다. 가상의 공간과 비현실적 작품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효과를 본 것 같다. 또한 덕분에 푸른빛 속에서 노란 빛은 대비되어 더욱 예쁘고 밝은 빛이 났고 그 빛이 무용수의 몸을 비추는 범위도 적당하여 의도했던 촛불에 집중 포인트를 줄 수 있었다.

조명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스스로가 조명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극장마다의 보유하고 있는 조명과 그리고 그 조명들로 다양하게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무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작품에 적용했더라면 더욱 농도 있는 조명으로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작품자체에 조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조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무대감독님이나 조명감독님의 추천으로 포그를 사용한건 아주 좋았다. 무대가 비어 보이기도 했고, 좀 더 몽환적이고 신비하며 홀리감의 느낌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어 포그 사용에 동의했다. 이런 부분 또한 안무자가 해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함이 안타깝다.

그리고 극장의 특성상 넓이 보다는 폭이 깊어 무용수들이 앞으로 서서히 전진하는 느낌을 공간감 있게 표현해 낼 수 있었다. 평소 폭이 좁고 넓이가 넓은 곳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동선이동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극장의 폭이 깊어 무용수 둘 사이의 공간감을 주고 싶을 때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연습 때 약속 되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정해져 있던 스텝이나 속도의 어쩔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일정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호흡까지 변화

여 공연할 때에 움직임이나 표현에서 100% 안정됨을 느끼지 못했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작품을 만들 때에는 공연되어질 무대의 크기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어야 극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고 작품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극장에서 작품을 수정하는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충분히 배웠다. 이렇게 조명이나 극장의 크기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나의 작품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초라는 빛을 사용하기 위해 아주 어두운 공간이 필요했고 빛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용수의 실루엣이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인위적 조명이 필요한 공간. 바로 그 공간이 무대였다. 오로지 무대에 올리기 위한 작품으로 밀폐된 소극장이 아니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품이 바로 '유유히'이다.

그리고 M극장의 검정색 벽돌이 주는 무대 뒤 벽의 질감이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작품의 뒤 배경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내 주었다.

벽돌이라는 그 일정한 패턴을 비추며 미끄러지는 블루조명은 칙칙한 벽돌의 질감과 너무도 잘 어우러져 한편으로는 벽을 전시하는 설치미술의 효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고 초가 지나갈 때에 느낌은 아름다움이 첨가된 작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

다시 돌아와서, 유유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작품에 접근하여 그 시간을 막고 잡아 세우려는 한 인간(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작품을 감상하는 그들에게 이런 마음 또는 비슷한 생각이나 바람을 지니고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객석으로 점점 다가가는 동선을 사용하였다. 나의 표현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여 슬픔과 애뜻함으로 가득 찼을 때 나는 객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몇몇의 사람들과 그 감정을 공유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으며 오로지 무대의 내 숨소리만 내 귀로 다시 들려올 정도로 무대는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관객이 잠든 것이 아니라면 무용수의 호흡에 함께 참여하고 무용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몇 개월간 작업하면서 나는 작품의 의미전달이나 춤을 잘 추는 것에도 욕심을 내었

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위주로 만들어진 내 공간에서 나를 드러내고 그 공간에 들어와 줄 몇몇의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 하는 것이 이번 작품을 하는 가장 큰 의의다. 그리고 그 몇몇의 사람들을 나 또한 느낄 수 있다면 성공한 작품이라 얘기하고 싶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철학을 가졌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듯이 작품을 보는 시선 또한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항상 소수일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 몇 명의 사람이면 된다 ’ 라고 말 할 수 있다.

움직임에서는 흐름이라는 한 가지 표현에 집중하고 집요하게 그것만 파고들었다. 초를 들고 했던 움직임은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움직임을 만들면서 초라는 제한적 범위 때문에 움직임까지 제한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신선한 움직임과 표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 촛농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행여 촛불이 꺼질까 소심하게 움직이고 초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는 듯한 잘못된 방향으로 작품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품에 억압받지 않고 과감한 동작들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공연 중 불이 꺼지진 않았지만 촛농이 쏟아지기도 해 그 부분에서 실수라는 느낌에 작품을 망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소품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맞게끔 소품을 잘 활용하는 법도 연구를 많이 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요하게 생각하지 못 한 것이 이번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무용수의 집중력이 그런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보완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행여 이 작품을 다시 시연하게 된다면 가장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움직임적인 부분을 더 타이트하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스피드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며 초를 세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초를 사용하여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초가 주는 그림자나 여러 크기의 빛을 활용하여 무대를 채워보고 싶다.

느림과 빠름의 구분을 더 확실히 하고 각자의 움직임 부분에서도 비슷한 면이 없도록 확실한 캐릭터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게 보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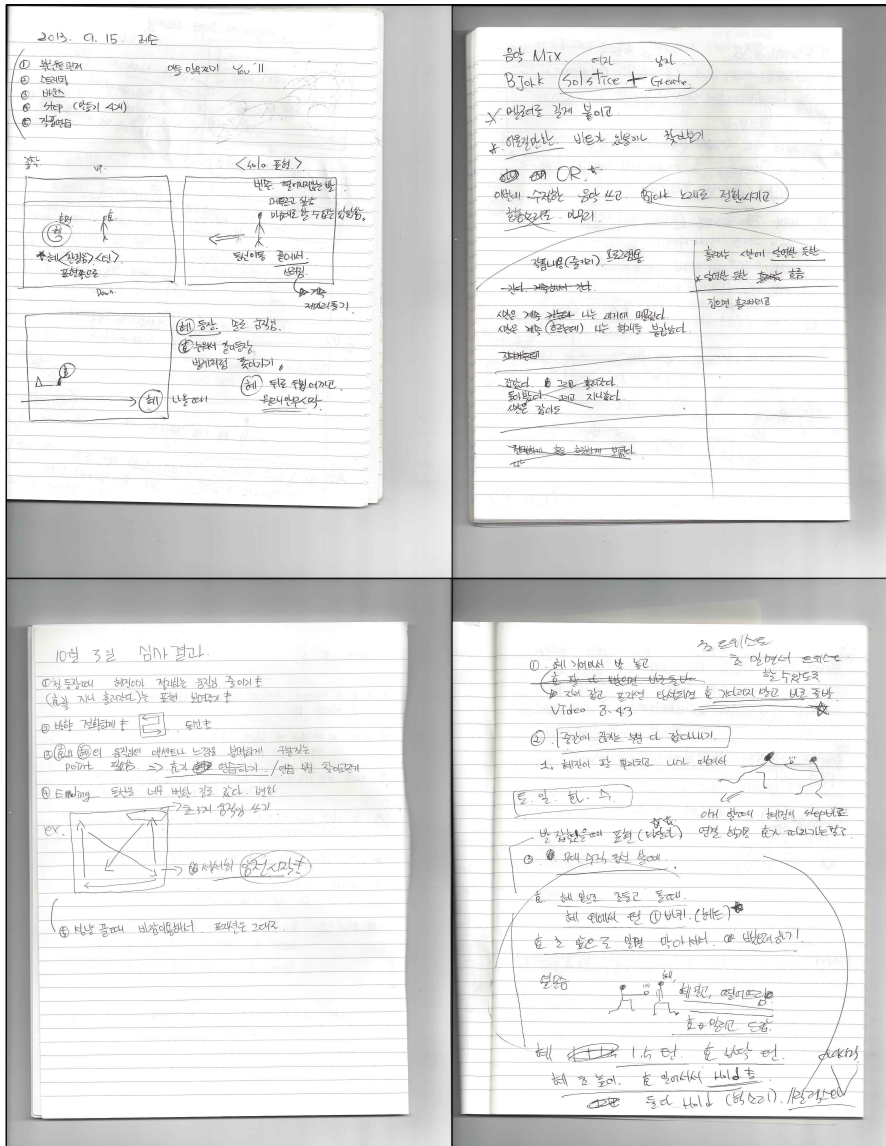
'유유히' 작품을 통해서 어느 한 가지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연구하는 안

무가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집요함속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집요함속에서 잘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안무가 라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집요함은 가졌지만 다양성을 찾는 눈은 가지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다양성이 존재함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안무작에서는 집요함속 다양함을 갖춘 안무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 [부 록]

## 1. 안무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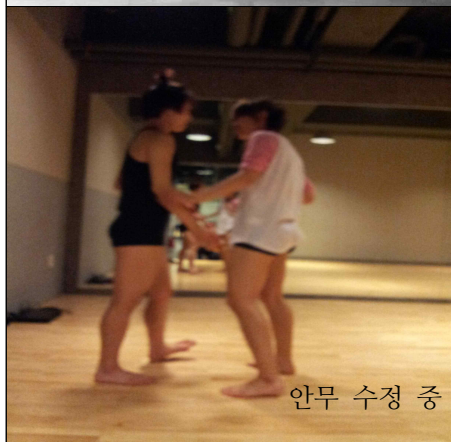
## 2. 연습 사진



1차 심사 전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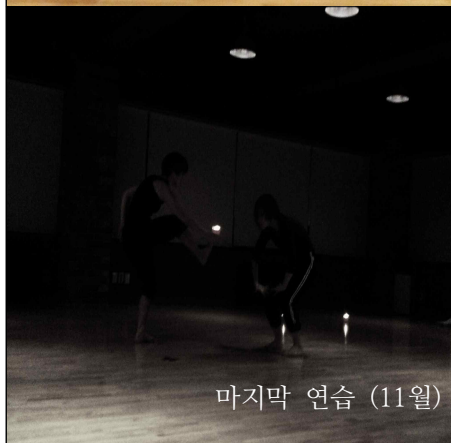
연습에 사용된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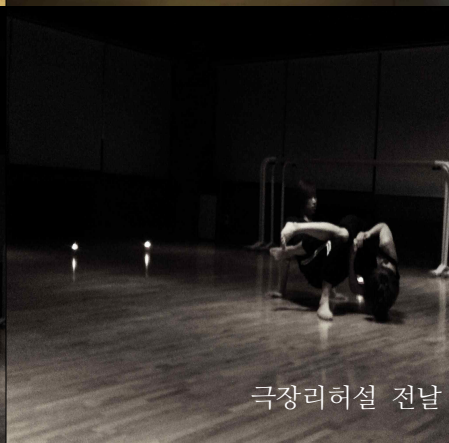
안무 수정 중



첫 연습 (6월)



마지막 연습 (11월)



극장리허설 전날